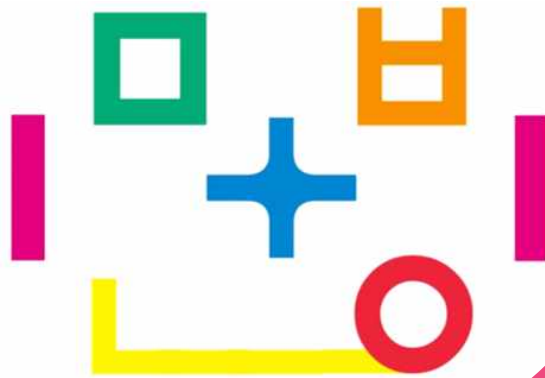


2018년 1호
제 9호

진로·취업 세미나



목차

인사말	3
제26회 멘봉데이	5
제27회 멘봉데이	17
제28회 멘봉데이	26
기획위원 후기	38
부록	44

인사말

심상민 교수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안녕 미컴학과 여러분들

‘멘토는 봉이다’. 멘봉데이 창립멤버 멘봉지기입니다.

글 쓰는 지금 아침 비가 얼음으로 바뀌고 있네요. 서울 어느 동네 커피숍 큰 창문에는 환상 영화 한 편 가득 차 흐르고 있습니다. 그냥 물이라는 원소와 물질이 안개로 아침 잠 깨었다가 분무기 뿌리는 보슬비로 1교시를 들어오는 연상이 되네요. 다음 2교시는 한 낮 굵은 비가 되었다가 이윽고 사선으로 내리치는 폭우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진눈깨비 첫 눈으로 오후 간식을 때우다 문득 지금처럼 겨울 하얀 눈발로 벼락 변신을 합니다. 알죠? 눈송이가 되면요 하염없이 떨어지기만 하던 수업 시대를 떨쳐버리고 하늘 높이 건물 너머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도 빗물 같아 보입니다. 안개에서 부슬비로, 소나기 폭우로 갔다가 마침내 눈 결정체로 세상을 접수해버리는 폭풍 존재감. 이걸 실감합니다. 멘봉데이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와서 만나보는 선배 멘토와 전문가 선생님들 앞에 앉은 미컴 수정이들은 맨 처음엔 딱 안개와 같죠. 안개비인지 안개꽃인지 모를 만큼 슬며시 들어왔다가 조용히 퇴장하는 무대 미술 한 컷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한 학기 중에 2번, 3번으로 멘봉데이가 축적이 되면 우리 멘티들은 또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질문도 하고 호응도 하고 정신적 정서적 교감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죠. 감흥도 한층 더 깊어집니다. 대학 4년이라면 이런 체험 게임들은 더 많이 성장하고 확장되겠지요. 그럴 때 나는 빗물의 변동을 체감합니다. 물방울 하나가 더 영롱해지고 더 거대해지는 형질 변화를 채록하게 됩니다.

이제 2018년 한 해 열두 계단 초입에 와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 이전 역사에서도 그러했듯 멘봉데이는 언제나 근거 있는 요술을 부릴 겁니다. 봄비부터 시작해서 제법 거세지는 장맛비까지 반갑고 달달하고 후련하며 멋진 풍경과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삼한삼미라 할 정도로 세상 뿌연 미세먼지 폐습들 정화하는 물방울의 힘을 거들겠습니다. 멘봉데이는 변동하는 모든 물방울을 돕기 위해 더 많이 뛰겠습니다. 바로 너, 물방울님이 보여준 초능력 요술과 실질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으니까요.

2018 일월 심상민 교수



멘토와 함께하는 시간,
취업 정보는 더하고, 자신감은 곱하자!

2017년 가을학기 멘봉데이

제26회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진로세미나 멘붕데이



영화 투자, 제작 및 배급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신
워너브라더스코리아 로컬프로덕션 대표 **최재원 멘토**

주요 이력

- '00.1~'05.8 아이픽처스(주) 대표이사 역임
- '05.8~'09.12 (주)바른손 영화사업본부 대표 역임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대표 역임
- '02.3~'12.1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아카데미 책임교수
- '14 제 14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 올해의 제작자상 수상
- 영화투자 '밀정' 'VIP' 등 20개 작품 메인투자 / '살인의 추억' 등
다수 작품 부분투자 / '변호인', '밀정' 등 제작

학력

- '90. 2 고려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 '93. 3 동국대학원 (정치경제학 전공)
- '98. 9~'01.1 수원대학교 금융공학대학원 수료(위험관리 전공)

I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s.)는 미국의 영화 제작 & 배급사 겸 TV 프로그램 제작과 음악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타임 워너 계열사에 속해 있는 종합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세계 영화사들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 주 버뱅크에 위치해있으며, 미국영화협회에 가입한 할리우드 메이저 6대 스튜디오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989년 9월 설립된 한국의 3번째 직배회사인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는 1992년, 디즈니가 독립적인 직배회사를 차리면서 워너 브라더스의 작품을 단독으로 수입/배급하는 체제로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고 2015년, 20세기 폭스코리아에 이어 2번째로 한국영화 제작사업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 후 1년 뒤인 2016년, 한국 영화 제작 진출 첫 작품인 <밀정>을 개봉시킵니다.



<사진출처 : Google 이미지검색>

I <1부> 최재원 멘토님의 이야기

▶ 경제학도, 영화계에 입문하다

실제로 저는 공부를 경제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정치경제학, 막시즘이란 것을 공부했었는데요. 대학원 거의 끝날 때쯤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소련이 붕괴하면서 공부했던 이론이 무의미해져버렸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께서도 돌아가셨고 결혼이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 제대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펀드매니저를 하고 있었지만 대학원을 못 마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 학위를 받고 증권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지만 왠지 모르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97년에 LG캐피탈이란 곳에 스카우팅 되어 가게 됐는데요. 그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IMF가 터지게 됩니다. 회사가 몰락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투자했던 방향들을 영화, 콘텐츠 비즈니스에 관심을 맞추게 됐습니다. 영화 투자를 98년도부터 시작했고요.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32살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아이픽처스’란 영화투자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몇 십억의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6개월도 안 돼서 전부 날아가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뒤돌아서는 사람들을 보며 자괴감이 심했었습니다. 이 순간 어떤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쪽으로 다시 해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친구를 설득해 바른손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표이사를 맡게 되고 ‘놈놈놈’이란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 후 생각해보니 영화를 제작하면서 투자를 받고 제작도 해봤는데 배급을 안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우’라는 회사에서 러브콜이 와서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해 그 곳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1년 정도 잘 하고 있었을 쯤, 그 때 나이가 마흔 중반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회사에서 내 기획으로 내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맨땅에 헤딩 한다는 마음으로 그 곳을 나왔습니다. 영화 한편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주는 조건으로 선봉을 받습니다. 그 돈을 모아 ‘위더스크린’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얻어걸린 영화가 ‘변호인’이었습니다. 1000만 관객이 넘어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에서 러브콜이 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든 것이 워너브라더스는 왜 전 세계에서 1등일까. 그래서 그 호기심에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저들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전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배울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 영화와 한국시장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죠? 우리나라 영화 관람 횟수를 인구로 나누면 4.3회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중 메인 관객층인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봅니다. 엄청난 숫자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영화의 선택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호도, 생각, 경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영화 산업은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에서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영화 시장은 미국, 중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타격이 컸습니다. 중국에게는 이 부분이 전체 매출의 2%에 영향력 밖에 미치지 않지만 이 2%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산업이나

컨텐츠 비즈니스의 여러분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은 시장규모는 작지만 실제로 대중들과 호흡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인지도, 내지는 문화적 영향력이 일정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압박하는 이유는 그것이 갖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그 산업이 갖는 문화적 효과에 대한 장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은 특히 극장에 치중되어 있는데 할리우드에서 볼 때는 40% 미만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할리우드는 개봉과 동시에 수천개의 스크린에 바로 깔릴 정도로 마케팅 비용이 큼니다. 하지만 한국영화는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야 할 만큼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비자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적인 정서나 이해를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겐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지만 그들에겐 그냥 동양인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인지도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IPTV 시장도 그렇게 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4.3회 보는 관객보다 9회 보는 주요 관객들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에 봤던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영화를 보길 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에 무거운 영화가 잘됐다면 다음엔 코미디 영화가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듯 관객 분석, 시장분석 등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 영화제작과 배급, 그 과정에 대해

영화 제작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소재를 고르는 것입니다. 원작에서 고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드라마를 본다고 했을 때 포인트 되는 스토리를 따오는 등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아이템을 개발하면 아이템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을 Development라고 합니다. 작가를 쓰기도 하고요. 다음은 감독을 붙입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누구와 영화를 만들겠다는 윤곽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돈을 받는 과정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영화에 투자하는 쪽에 가야하는데 아무리 적게 드는 영화라고 해도 몇 십,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 배급사와 투자자들입니다. 투자가 유치되고 나면 예산을 짜고, 촬영 스케줄을 짜고 현장을 섭외 및 픽스하고 거기에 따른 미술 작업들을 하는 것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입합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프리 프리덕션 계획을 잘 만들어놔야 감독이 없어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면 하나를 찍기 위해서는 장소 섭외부터 시작해서 스태프 최소 60명, 배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5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을 짜고 촬영 들어가고 그 후에 편집에 들어갑니다. 편집, 음향, 음악 등 작업을 하는 것이 포스트 프로덕션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즈니스입니다. 개봉날짜를 두고 전투를 벌입니다. 날짜를 잘못 선정했다가 다른 경쟁작들에 묻혀버리면 관객들에게 개봉했는지도 모르게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영화는 크게 5개의 빅시즌이 있습니다. 설날, 가족의 달인 5월, 7·8월, 추석, 크리스마스. 영화를 많이 찾는 이유는 문화적 효용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케팅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영화 개봉 소식을 주로 어디에서 듣나요? 온라인? 옥외광고? SNS? 쇼프로그램? 그 다음엔 영화 정보를 여러분이 찾아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케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기도 하면서 인지도를 최대한 높이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팔고 이후에 해외에서 파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후 벌어들인 돈을 투자자와 나누

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정리하자면 연출파트는 기본적으로 창작하고 테크닉과 관련한 측면을 말합니다. 연출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연출파트에 있어야합니다. 감독과 함께 조감독, 스크립터 등입니다. 제작파트는 저와 같은 프로듀서, 제작 실장 등이 있습니다. 저는 프로듀서로 전체 판을 짜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장비 업체, 메니지먼트 컴퍼니 영화에 관련해 컨택해야 할 업체들이 많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 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작파트는 작가, 배우, 미술, 아트디렉터가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촬영, 조명 등 특히 이런 부분은 대형 업체들이 많습니다. 마케팅 파트는 마케팅 대행사가 주로 말합니다. 마케팅적인 판단이 시나리오, 배우 연기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SNS 등이 발달하면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현장감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 없이 혼자라도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부터 겪는 것이 경험치가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이 충돌하면서 서로 마모가 되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2부> 최재원 멘토님께 묻다!

사회자 : 멘봉데이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멘봉데이 2부는 구글 폼으로 사전에 받은 질문과 현장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우선 여기 있는 질문들 중 선택해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원 멘토 (이하 '최'): 먼저 영화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한 답은 아까 1부에서 충분히 드린 것 같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웃음) 맨 첫 번째 칸에 있는 질문에 '영화 전공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화 분야 취업을 위해선 어떤 소양을 갖춰야 하나요?' 라는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많이들 하는 질문입니다. 영화 관련 전공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영화인이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께서 물어 보십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영화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인문학과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고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영화 전공자가 아닌데 영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서 같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을 예로 들자면 사실 이분은 영화 전공자가 아닙니다. 학부 때 사회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물론 영화 아카데미를 나오시긴 했습니다. 또 박찬욱 감독님 역시 불문과를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영화 전공자들은 아니지만 인문계열이셨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화에 종사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 중 영화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전공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문학에 대한 표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잠시 영화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기존 영화 분야에서 일하면 본의 아니게 열정페이를 요구 했었는데 요즘에는 영화 산업이

활발해져 어느 영화 현장이든 아무 경력 없는 막내 스태프로 들어오게 되면 월 25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스태프진들이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는 경우인데 신입 스태프 분들 역시 일을 잘하는 스태프진들과 일하면 여러 곳에서 러브콜이 오고 그 반대의 경우 일이 자주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국 상업 영화가 약 100편 정도 제작이 되고 독립 영화까지 포함시킨다면 약 400편 정도의 영화가 제작이 됩니다. 이 중 직업으로서 의미를 가질 만큼의 현장을 따지면 150편 정도입니다. 이 150편 정도의 영화도 규모에 따라서 시니어 스태프들이 차지하는 일의 비중이 40프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일 분배에 있어 불균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영화 분야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사항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할 거 같은데요, 바로 **스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떤 스펙을 쌓는 것이 좋을까요?

최 : 영화 쪽에 일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스펙은 **영화에 대한 관심과 대인 관계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스펙**인 거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현장에는 수많은 스태프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 영화인데 제작팀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뽑을 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서슴없이 돕는 오지랖이 있는 사람, 성격이 둥근 사람입니다. 일반 기업들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스펙을 가진 사람은 사실 영화계에선 같이 일하기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스펙이

라도 조금 더 추가 점수를 줄 만한 스펙의 경우는 비전공자가 다른 곳에서 영화 관련 수업을 이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많이들 갖고 계신 언어 능력 스펙의 경우 역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스펙은 아닙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면 좋지만 사실 한국 영화를 만들면서 꼭 언어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 중국어 능력자를 뽑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스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어 능력자가 필요해서 뽑기 보다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모든 스태프들과 잘 협력을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스펙보다는 대인관계, 성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일반 기업에서 중시하는 스펙들이 영화계에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슷한 질문이 눈에 띄는데요. '워너브라더스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채용합니까?'. 매니저 급 이상은 일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입사 조건을 정하긴 합니다. 그 직책 이상의 사람들은 어시턴트를 잘해내야 하고 워너브라더스 본사와의 소통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능력과 같은 언어능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영어능력이 채용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영어 능력자를 뽑았습니다. 이 사람은 영어를 잘해서 본사와 소통은 잘 되지만 문제는 한국의 정서, 즉 공동체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 사람과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처음 입사 시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는데 그 시기 동안 그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화 능력보다는 같이 일한다는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과 얼마나 협력적으로 잘 일하는지가 관건인 거 같습니다. 반면에 영어 능력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지만 스펙은 그 사람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채용했는데 이이 분은 한국을 벗어난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잘 이해하고 같

은 리포트를 써도 성심성의껏 썼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한테 더 일을 맡기고 싶고 계속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스펙이 화려하다고 해서 이 일을 하는데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대한 콤플렉스로 스펙에 집착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 같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현장 스태프에게 있어 스펙이 좋은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세가 바르고, 성격이 둥글고, 근성이 있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런 성격적인 부분은 가까이에서 보면 잘 보이고 심지어 면접에서 봤을 때도 잘 드러납니다. 즉, 영화에 있어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펙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거 같습니다.

사회자 : 네. 멘토님께서서는 스펙보다 사람의 소양이나 성격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워너브라더스에 입사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최 :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의 본사가 워너브라더스 미국 지사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외국계 기업의 **장점은 개인적인 활동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식 문화가 없습니다. 저에게 법인카드가 있는데 이 법인카드는 제가 직장의 다른 동료들과 식사를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식사를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입장에선 '회사 경비인데 왜 너희들의 식사에 사용하니?' 라는 마인드입니다.(웃음) 회사의 경비는 비즈니스를 할 때 쓰는 것이라는 게 외국계 기업의 기본적인 마인드이다 보니 회식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같이 세계 곳곳에 지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보고 라인이 매우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지사의 의사결정은 제가 내리지만 그래도 제 결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

런 부분의 경우 미국적 정서를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고 잘 해고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다니기에는 매우 좋은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세계 곳곳에 회사가 있고 서로 네트워킹**하는 부분은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워너브라더스의 경우 런던, 로스 엔젤러스, 한국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하면 서로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로스 엔젤러스 측에서 문서를 보내고 퇴근을 하면 그 시간에 제가 출근하기 때문에 문서를 확인하고 런던으로 다시 보내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퇴근할 때쯤에 런던에 계신 분들은 출근을 해서 문서를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 서로의 생활 리듬에 맞게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서양 회사의 조직 체계, 일하는 방식 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너스가 잘 나온다거나 복지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대신에 잘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 소니,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21세기 폭스, 유니버설 등 많은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마찬가지로 확장하려는 추세는 아니기에 추가 채용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니버설의 경우는 직원의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만 이들도 주로 경력직을 많이 뽑습니다. 이런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요.



사회자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화 얘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다양한 영화 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 영화계에서 주목하는 영화 소재가 무엇인지, 영화 개봉일이 왜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뀌었나요, 로봇 프로덕션 제작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등등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최 : 요즘 주목하는 영화 소재는 개인적으로 조금 가벼운 소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봉한 영화 'VIP'에서 이제 조금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최근 영화들은 다 장르 색채가 강한 영화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드하지 않은 장르물을 택하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상하게 최종적으로 택하게 되는 것들은 조금 무거운 영화들이더라고요. 이제 곧 개봉할 영화는 안산에서 벌어지는 형사 이야기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많은 정치적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데 사실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담고 싶은 많은 이야기를 담지 못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의 경우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크게 민감해 하지 않고 내용이 좋다면 제작을 밀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자주 내보이는데 이번에는 하고자 하는 말들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맨틱 코미디와 같이 무거운 주제에서 조금 탈피한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tvN과 같은 방송국에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를 너무 잘 만든다 보니 사실 영화에서 제작하기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보는 영화인데 적어도 집에서 보는 텔레비전 방송보다는 재밌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이 워낙 well-made 드라마를 제작하다 보니 로맨틱 코미디를 하기에는 조금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대 간의 간극을 메우고 트렌드에 맞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이외에도 하고 싶은 가벼운 장르는 코미디입니다.

이 영화를 봤던 시간들로 인해 휴식이 된다는 생각을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식사가 아닌 저렴하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국밥과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고 미국 본사에도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가볍되 영화의 완성도나 품격은 떨어지지 않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화 개봉 일이 목요일에서 바뀐 것은 과거를 얘기하자면 과거에는 토요일에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여러 극장이 생기면서 개봉 일이 조금 더 앞당겨져 금요일에 개봉 일이 되었다가 다시 앞당겨져 목요일로 개봉 일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역시 여러 상황들로 화요일, 수요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예매율 집계 일이 수요일인데 이를 토대로 스크린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요일로 앞당겨진 이유도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예매율을 토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배급사는 영화를 받아서 뿌려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영업 사원입니다. 2500~600개 정도 되는 스크린에 배급사가 자신의 영화를 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영화를 스크린에 걸도록 극장에 부탁을 하는 것이 배급사입니다. 자신의 영화에 대한 수익을 판단하여 스크린 수를 결정하고 이에 맞게 부탁을 하는거죠. 스크린 독점의 문제는 배급사와 극장의 이익 충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지 극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장 영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극장은 멀티플렉스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이슈에 따라 이벤트를 열거나 극장에 찾아오는 관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멀티플렉스, 극장의 일인 것입니다. 극장 내에서 자기들끼리 영화제를 하기도 하거나 극장이 판단했을 때 좋은 외국 영화들을 수입하여 상영하기도 합니다.

사회자 :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배급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최 : 네. 배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 전 수요조사**입니다. 감독에 대해 아는지, 배우에 대해 아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영화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개봉 시기를 조정합니다. 또한 그 시기의 관객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하여 분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요일에 관객이 많은지, 예전 비슷한 시기의 관객들은 어떤 영화를 많이 봤는지, 외부적인 상황은 어떤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작년에 있었던 촛불 집회의 경우는 예상치 못한 변수이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영화 산업 자체가 조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정한 날 역시 영화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피해서 개봉 일을 조정합니다. 영화 성향에 대한 분석, 관객 수요 조사, 경쟁 상황, 마지막으로 관객들의 행동 양상을 파악해서 배급일을 결정합니다. 사실 이런 일을 오래하다 보면 관록이 쌓이고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회자 : 배급 일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로서 가장 신뢰가 가는 광고 플랫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최 : 광고주로서 가장 신뢰가 가는 광고는 아무래도 가장 효과가 큰 광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일 광고 효과가 큰 것은 여전히 **텔레비전 스타를 활용**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광고를 쓰는 것은 텔레비전 광고를 다 빼고 무조건 JTBC 뉴스룸과 썰전 프로그램 앞뒤에 광고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올 초에 탄핵 관련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로부터 시선이 돌려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놈놈놈’이라는 영화 광고가 나왔을 당시 광고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럴 비용이 부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대카드와 협력해서 현대카드에 배우들의 얼굴과 영화의 장면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대신 현대 카드 측에서 영화 광고를 텔레비전에 한 달 동안 내보내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 외에도 **최근에 주목하는 플랫폼은 인터넷**입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같은 곳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의 경우 영화 광고를 했을 때 영화의 내용이나 본질이 조금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로 CGV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관객들에게 노출하기에 효율적입니다. 옥외 광고의 경우 가장 큰 홍보 매체는 버스 광고입니다.

사회자 : 워너브라더스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 : 저희는 올빼미 생활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사들과의 시차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인데 이런 소통을 주로 밤에 하다

보니 출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습니다. 어시스턴트의 경우 조금 늦게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지사들의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야간 근무입니다. 사실 업무 같은 경우 부서마다 다릅니다. 제작부 막내팀은 스태프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거나 도로통제 같은 업무를 합니다. 일이 부서마다 다르다 보니 출퇴근 시간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홍콩에 HR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채용을 홍콩에 있는 HR이 합니다. 본사와의 소통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자금을 내보낼 때 마다 승인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기에 서류를 작성해서 올리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절차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주일마다 한 번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회의를 하는 날이 있고 이주마다 한 번 화상회의를 합니다. 화상 회의 때 조금 힘든 점은 역시 각 나라의 시차 차이인 거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이런 정해진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합니다.

사회자 : 네.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거리도 거리지만 시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수입 영화와 국내 영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최 : 수입영화의 경우 할리우드 영화를 배급하는 곳이 있고 제작하는 곳이 있는데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는 것은 **비용**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작하는 곳이 배급하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배급하는 곳은 간단히 말하자면 영화를 틀면 됩니다. 수입하여 배급하는 곳은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제작 비용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벤저스와 같은 큰 영화는 예외적으로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사회자 : 요즘 영화의 소재가 매우 한정적인데 왜 그런지, 또 정치적 흐름을 고려하여 영화 개봉을 결정하는지, 음향 감독의 권한이 음악에 있어 강한지 궁금합니다.

최 : 영화의 소재 같은 경우 경향성을 띠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소재의 영화들이 많이 흘러들어 오는 거 같습니다. 법정 소재가 대두되면 갑자기 법정 소재를 쓴 영화들이 유입되거나 다양한 정치 소재의 영화들이 한꺼번에 흘러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 같은 시기에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상황의 영향이 창작자들의 인식에 미칩니다. 정치는 공기 같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창작자들의 의식의 흐름이 조금 비슷해지고 특정 소재에 대한 경향성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에 있어 정치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려는 제작을 할 때 주로 많이 합니다. 배급은 영화를 제작을 했으면 어쩔 수 없이 개봉은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상황에 대한 고려를 크게 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다음 영화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를 제작을 할 때 주변 외부적인 상황도 고려합니다.

음향 감독의 질문의 경우, 각각의 파트 감독들의 조언은 중요합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완성도 높은 영화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분의 전문가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권한이라고 하려면 음향 감독이 지시를 내린다거나 요구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조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한은 감독한테 있는 것이고 다른 부분의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자 :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하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프로듀서에서는 창작에서 영향을 많이 갖나요, 비즈니스에서 영향을 많이 받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최 : 둘 중에서 고르자면 비즈니스에서 많이 영향을 받고, 갖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산업은 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입니다. 프로듀서에게 있어 이 영화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가 주 관심사이자 고민입니다. 프로듀서가 비즈니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창작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잘 팔리는 완성도 높은 영화를 위해서는 이 영화를 예술로 만들 수 있는 창작자가 필요하고 프로듀서는 이 창작자들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창작적인 이해와 예술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영화를 많이 보고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특히 남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많이 봐야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영화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관객이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지가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영화 택시 운전사의 경우 영화 자체만으로 봤을 때 완성도가 높은 영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이 영화를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우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역사적인 소재를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내고 또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가 한 몫을 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평론가들이 완성도가 높지 않은 영화임에도 왜 좋아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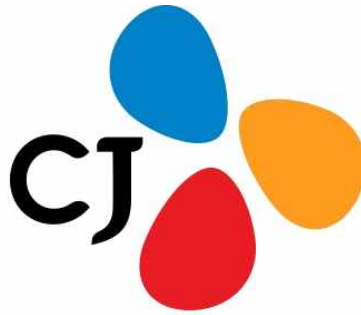
Q. 끝으로 오늘 오신 학생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 제가 이 직업을 갖기 전에 사업을 크게 실패하고 몸이 매우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직업으로써 이 영화 분야, 워너브라더스를 택했습니다. 그 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을 하고 싶은 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직업을 선택 해야지 직업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업은 단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형식적인 도구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남이 말하는 것이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 자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잘한다고 남한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고민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목표점을 항상 두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목표 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목표점과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진로세미나 멘봉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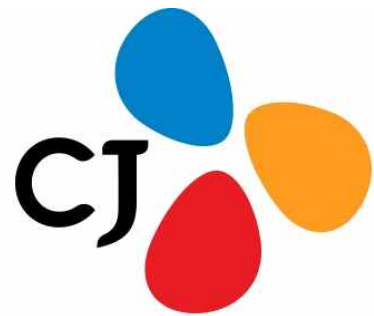
미디어 콘텐츠 솔루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신
CJ E&M 미디어 솔루션 부문 광고사업 전략 양다솜 멘토

주요 이력

'09. 3 - '15. 2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
'14. 3- 14. 7	캐나다 통신사 인턴쉽
'12. 4 - '13. 5	현대자동차 영현대 글로벌 기자단
'11. 9 - '11. 12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멤버쉽
'12. 08 - '13. 07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교환학생
'10. 9	삼성물산 산학협동 프로젝트
'10.6 - '10. 7	성신여대 캄보디아 해외 봉사단
'16 ~	CJ E&M 인사이트랩

I CJ E&M

CJ E&M(Entertainment & Media)은 방송과 영화, 음악, 공연, 애니메이션, 컨벤션, MCN 콘텐츠를 아우르며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 플랫폼 서비스로 아시아 팝 문화의 세계화를 리드합니다. 또한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글로벌화 함으로써 콘텐츠 한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CJ 공식 홈페이지>

미디어 솔루션 직무는 콘텐츠, 소비자,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당사 보유 상품 가치 증대, 클라이언트 설득 논리를 개발하여 회사에 사업적으로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첫째,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되는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콘텐츠와 소비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굴합니다. 발굴된 인사이트는 1) 당사 보유 상품 및 캠페인 기획/개발 2) 콘텐츠 기획 / 개발 3) 캠페인 운영 최적화 4) 클라이언트 성과 입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확보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정교화하고, 활용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새롭게 확보되는 플랫폼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지, 소비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소비자 그룹에 따른 콘텐츠 소비 유형은 어떠한지 등 데이터로 해결 가능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회사에 사업적으로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I <1부> 양다솜 멘토님의 이야기

▶ ‘미디어솔루션’이란

안녕하세요. 저는 CJ E&M 미디어 솔루션 부문 광고 사업 전략 부 2년차인 양다솜입니다. 학생들이 미디어솔루션이란 무엇인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미디어 솔루션은 이전에 광고 사업 부라고 불렀는데요. 미디어 솔루션 부문 소개를 하자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광고 전반, 마케팅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사업 전략은 “광고/ 상품/ 기획, 영업” ‘MCN사업’, ‘Creative’, ‘광고 사업 전략’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콘텐츠, 소비자,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당사 보유 상품 사치 증대, 클라이언트 설득 논리를 개발하며, 회사에 사업적으로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 근로환경과 사내 복지

학생 : 근로 환경과 사내 복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웃음) 제작 파트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업무 강도가 센 편은 아닙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일을 하는 유연 근무제를 시행 중인데요. 간혹 ‘Break Invent’라고 2시에 퇴근해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리원 캠프’ 라고 해서 2년차가 되면 전 계열사 직원들이 모여서 가는 캠프도 있습니다. 동기들이 모여서 초심을 다지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행사이죠. 업무의 유연성, 문화 생활의 보장, 동기들과의 친목 등 근로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건 CJ 계열사 할인 혜택 제도인 것 같습니다. (웃음)

사회자 : 네. 역시 소문대로 복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야근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앞서 말씀 드린 회사의 장점 중에 업무 강도가 세지 않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1년차 때는 야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업무량의 문제였기 보다는 신입 사원 시절에는 생각한 것만큼 일처리를 빨리하는 것이 힘들어서 야근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8시 넘어서까지 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유연 근무제이다 보니 자신이 집중해서 일을 끝낼 수 있는 시간대 내에 업무가 끝나기만 하면 되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취업을 위한 준비

사회자 : 이제 취업 준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멘토님께서서는 취업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준비기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12월에 첫 레주메를 낸 곳이 외국계 홍보 회사였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난히 잘 붙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모전 수상 경력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경우 스펙에 한 번쯤은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기에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나는 경쟁력이 없는 지원자인가?' 하고 자문 했었는데 없어서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남들은 있는 스펙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으실 거 같습니다. 대외 활동을 많이 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배운 것도 많았고, 레주메에 쓸 수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학교 수업이 참 중요했습니다.

제 자격/면접 사항 부분은 운전 면허증, 초등학교 때 탄 워드프로세서가 전부였습니다. 한자, 한국사 등 좋기는 한데, 이것 준비하는 것 보다 관련 사업에 대한 공부, 인적성 검사 공부, 자소서 수정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영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토익 900점 이상까지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할 줄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한 문항에서는 콘텐츠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이야기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점들, 경쟁력 등을 어필했습니다. CJ는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차장, 부장님들께서 하루 종일 아무런 정보 없이 블라인드 된 상태에서 자기 소개서만 읽습니다. 자기 소개서에 있어 군더더기를 빼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쓰다 보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반복해서 써보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역량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직무가 수치에 기반하여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팩트가 중요합니다.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말이나 회사의 인재상을 활용해서 자기 소개서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의 '성실', 지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열정', 회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창의', 면접에서 주로 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의 '존중'과 같은 말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면접 TIP!

사회자 : 끝으로 면접에 대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창한 말이 아닌 바로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본인이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철저히 준비를 했을 때 생깁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긴장의 완화로도 이어져 자신이 아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CJ에서는 2:1로 면접을 봤었습니다. 지원자 한 명과 면접관 2명입니다. 사전 과제와 현장에서 푸는 과제 등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광고 상품에 대해서 과제를 받았었는데, CJ의 광고 상품과 관련하여 제 아이디어를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과제인데요. 이 때 저는 취업 스테디를 하면서 모의 토의를 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 보수적이고 단정한 복

장을 추천합니다. CJ가 출근할 때는 자유 복장이지만, 면접은 미래에 같이 일하게 될 상사들을 처음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정한 복장이 좋습니다. 뚝뚝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복장을 추천합니다. 1차 면접 그룹PT에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일이 토를 달거나 나서는 것이 아니라 켄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지원자들이 얼어서 말을 못하거나, 흥분해서 폭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혼자 하는 일이 없고, 융합해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인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I <2부> 양다솜 멘토님께 묻다!

사회자 : 이제 멘봉데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멘봉데이 2부는 구글 폼으로 사전에 받은 질문과 현장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먼저 취업에 있어서 상반기 준비와 하반기 준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다솜 멘토 (이하 '양') : 큰 차이는 뽑는 '인원 수'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는 많이 안 뽑습니다. 이는 상반기 때 그 1년 동안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채용 인원이 많습니다. CJ E&M은 그 중에서도 채용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경쟁률이 높긴 하지만 합격할지 말지는 50:50의 확률이라고 할 정도로 채용 인원이 많습니다. 취업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일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를 고민해서 서류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준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가장 열정적으로 임하다 보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 : CJ 사내 문화가 궁금합니다. 팀 내 응집력, 휴가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지 등이요.

양 : 팀 바이 팀인 것 같습니다. 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응집력이라기보다 개인주의적으로 개인의 삶을 존중해주면서 뭉칠 땐 뭉치는 쪽인 것 같습니다. 휴가의 경우 1년차는 15번 정도의 월차를 주고 보통 일주일 정도입니다. 5년차는 보름, 10년차는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 앞서 1부 때 CJ 복지 혜택 중 할인 제도가 가장 좋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더 말씀해주세요.

양 : CJ 직원 할인은 최대 40%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리브영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웃음) 이 할인 혜택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뮤지컬, 지산 밸리룩, 영화 티켓 등이 직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직원뿐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까지도 혜택을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 해외 인턴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가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양 : 해외 인턴을 가서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팀에서 두 달 정도 일했는데요. 다른 인턴 활동들은 마케팅 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사실 해외 인턴은 영어 공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할 때 하는 영어와 공부하는 영어와는 다르다 보니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근무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놀러다니기도 했기 때문에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고 온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여자는 취업 시 나이를 많이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취업을 할 때, 나이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동기들의 평균 연령도 궁금합니다.

양 : 서른 살만 넘지 않으면 나이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27살에 면접을 보고 28살에 입사를 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같이 일하는데 있어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스스로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CJ는 여성 파워가 굉장히 센 조직입니다. 여자가 와서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끌어줄, 다른 사람들을 끌어줄 여성리더가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멘토님께서 이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양 : 저는 TV보는 것도 좋아하고 공연 같은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듯, 저 역시 예전부터 미디어 콘텐츠를 좋아했기 때문에 먼저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여기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자 : 입사 시 미디어 솔루션 부문 채용 인원과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앞으로도 해당 부서 채용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양 : 저는 인사 팀이 아니기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영업 사원에 대한 니즈는 많아질 거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인원이 줄어들 거 같지는 않습니다. CJ 계열사 중에서 E&M 경쟁률이 가장 높긴 합니다. 하지만 경쟁률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CJ는 학벌을 많이 본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양한 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 역시 다양한 학벌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해외 대학 출신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본인이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생각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사회자 : 영화, 공연 사업부에서는 채용 공고를 잘 올리지 않는 편이고 다른 사업들보다 부진해서 정보를 얻기가 힘든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양 : 개인적으로도 영화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글로벌 쪽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좀 침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영화사업 쪽으로 가실 생각이시면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사업 역시 신입을 많이 뽑는 분야는 아닙니다. 차라리 OCN이나 캐치온에 가시는 게 좋은 커리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굿즈샵도 직무와 연관이 있나요?

양 : ‘마린시티’라고 콘텐츠를 기반으로 굿즈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커머스 사업팀이라고 콘텐츠를 기반으로 굿즈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 영역인데 E&M은 유연하게 움직이는 회사기 때문에 사실 변동 사항이 많습니다.

사회자 : 취업 준비, 입사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인적성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양 : 해외에서 일을 해 본 것이 경쟁력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블로그에 글을 썼다는 것조차도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인터넷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죠. CJ의 인적성 시험은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많이 푸는 것 보다는 정답률이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0 문제가 있으면 다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풀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찍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자 : 하고 계신 업무가 주로 데이터에 관련한 작업들인지, 소비자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지 그리고 CJ 만의 소비자 분석 시스템이 따로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양 :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적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등에 사용되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 모음)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또, TV 광고는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는 ‘좋아요’ 개수, 댓글의 수, 공유 횟수 등을 보면 사람들이 그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내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교환학생을 가기 전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은가요?

양 : 사실 비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어떤 경험을 했고, 자기 계발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교환학생이든 어학연수든 가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광고 홍보가 미국에서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 곳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서 교환 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취업 준비할 때 하셨던 고민이 있었나요?

양 : 제가 무딘 편이어서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졸업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요즘 결혼도, 취업도 늦게 하는 추세다 보니 시간에 쫓겨서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고민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영어는 어느 정도 준비하셨나요?

양 : 저는 조기 교육을 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하다보니 이것이 생활 영어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 가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나눠야 영어가 늘기 때문입니다. 입을 닫고 있다가 어학연수나 교환 학생을 떠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생 : 멘토님께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양 : 열심히 놀고 싶습니다. 사실 대학생 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학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그때보다 조금 더 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가 아닌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서 대외활동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대학생 시기 때는 불안정하기에 누구나 고민이 많고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돌아해보면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학생 : 일을 하는 동안 가장 뿌듯함을 느꼈을 때는 언제 인가요?

양 : 저는 현재 사원이고 막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기 취급을 받는 중인데요. (웃음)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 상무님이 제게 어려운 과제를 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에 모아서 분석하는 업무를 시키신 건데요. 밤11시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다 끝내고 결과물을 보신 상무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진짜 뿌듯했습니다. 또 데이터를 뽑아 보여주고 광고주 쪽에서 연락이 왔을 때, 피드백을 받을 때, 좋은 콘텐츠가 나올 때 등등 많은 부분에서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학생 :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수업 중 가장 인상 깊었거나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무엇인가요?

양 : 저는 소현진 교수님의 수업이 좋았습니다. 많은 자료를 분석해야 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교수님 수업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얻는 것도 많았고 소현진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좋았습니다. 세월호 뉴스 기사 헤드라인을 다 뽑아서 긍정, 부정으로 나누는 과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교수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사회자 :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합격할 수 있었던 ‘한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양 : 운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해 많이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트’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내 이사들, 상무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세미나도 다 나오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의 얼굴을 익히고 면접에서 타겟팅하는 것이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후회하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양 :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많이 지원해보고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여기저기 지원해보고 면접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후회되는 것은 조금 더 일찍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빨리 했으면 그만큼 더 빨리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을까 하고 가끔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취업 준비 당시 따로 학원도 안 다니고 그저 미국드라

마만 봤거든요.(웃음) 취업 준비생이라고 주눅이 들어 취미 생활도 안하고 학원만 다니는 건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회자 : 삼성 전자 커뮤니케이션 멤버십은 어떤 것인가요?

양 : 문화 마케팅 수업에서 한 것입니다. 수료증이 나온 활동이면 거의 다 이력서에 쓰셔도 됩니다. 단, 거짓말은하시면 안됩니다.

학생 : 끝으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 근처 맛집 중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양 : 저는 개인적으로 연어 돈부리를 파는 곳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쉽게도 이름은 생각나지 않네요. 그리고 소테, 농파스타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웃음)



제28회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진로세미나 멘붕데이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신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송지나 멘토

주요 이력

- '08.3~ '14.2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
- '09. 7 한국대학봉사협의회 지구촌공생회 해외봉사
- '09. 10 청소년 국제교류 실무자 워크숍 기획단
- '11. 8~ '12.6 University of Mary Washington 교환학생
- '12. 9 파인애플 홀딩스 기획부

I 서울문화재단

이 시 민 과 함 께 문화 도시 를 만 들 자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서울특별시가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다양한 예술 창작지원 문화·축제, 예술교육 및 지역과 소통하는 창작공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더 새롭게, 문화로 더 즐겁게 행복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시민도시를 구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무용센터는 무용창작지원사업과 국제교류사업, 예술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무용인을 위한 호스텔 및 연습실 운영을 통해 무용생태계를 조망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I <1부> 송지나 멘토님과의 만남

▶ 예술지원사업과 서울문화재단

저희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그런 공동의 틀 안에서 가능한 자유롭게 예술가들이 예술을 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도별로 재단이 하나씩은 있다고 봅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생긴 곳이 경기문화재단이고 그 다음이 서울문화재단이 생겼고 규모가 꽤 큼니다. 그 후로 성북문화재단 등 많이 생겨났는데 사실 하는 일들은 비슷합니다.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예술가들을 위해서 예술 창작을 지원하든가 아니면 예술을 하려는 이들을 지원하든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www.sfac.or.kr/

지금 보여드리는 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온 카테고리들을 보시면 저희가 하는 일들을 가장 깔끔하게 정리해놓았어요. 사실 재단에서 예술가와 예술을 하려는 이들을 지원하다 보니 많은 갈래로 나뉘어져 있긴 한데 사실 일이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딱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창작지원 부문에 '서울무용센터'입니다.

서울무용센터에서는 일하다보니 공연장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연예술 기반으로 활동을 하다보니 그 작가들이 공연을 완벽히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쇼케이스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공간이 필요해서 스튜디오 블랙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또 요즘에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공연 작업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을 활용을 해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6개의 무용 연습실에 6개의 호스텔이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사업은 일단 창작무용센터는 또 두 가지 갈래를 가지고 있는데 지원 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 누군가 '저 호두까기 인형을 하고 싶어요!'라고 지원을 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시필름의 경우 저희가 직접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예를 들어 재작년 국제 레지던스 부문은 해외 예술가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예술가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저희에게 지원서를 주시면 그 지원서 중 한국인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고 적합한 것 같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제공하는 호스텔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시민이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아니면 자기 작품을 선보여서 거기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다든지 이런 자체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술지원사업으로 돌아가서 기금을 드리는 사업은 혹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초예술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습니다. 35세 미만 대학 졸업생들이 처음으로 등단하지 않고서는 작품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금을 주는 겁니다. 자체 지원 사업의 경우 저희 서울무용기관이 갖고 있는 해외 센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협약을 맺어서 안무가를 보내고 또 안무가를 받고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사업입니다. 예술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지금은 댄스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긴 한데 올해는 댄스 필름을 만들고 싶은 안무가나 영상 감독님들이랑 매칭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춤인’이라는 웹진을 제작하고 있어서 거기서 춤 관련 이슈들에 대한 것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많다 보니 대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무용센터는 서울 문화재단 안에 있는 12개의 창작 공간 중의 하나입니다. 공간별로 또 지역별, 장르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금천은 시놉시스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남산 창작센터의 경우 연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레 예술극장은 음악, 전통 쪽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연극센터는 또 연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작 아케이드는 신당역이 있는 곳에 큰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상가에 위치해있습니다. 아마 기안 84의 친구 총재씨가 계신 곳이라고 하면 더 잘 알지 싶습니다. 연희문화창작촌은 연희동에 되게 예쁜 단지에 위치해있습니다. 잠실 삼각 스튜디오는 종합운동장 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구간으로 자리해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창작 공간 중에 조금 큰 본부를 말씀드린 것이고 예술 교육 부분의 경우 예술 선생님들을 학교에 파견하거나 예술 강사들을 파견해서 예술가들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지역문화의 경우 하이 서울 페스티벌 아시나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크게 하는 문화 축제가 있는데 시민이 생활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생활 문화는 시민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창작자가 되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봐 보여드리는데 생활연구MCM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직업적으로가 아닌 취미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문화 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에 가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일 정책 교류는 전체적인 서울시의 문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거나 다른 시 혹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라던가 아니면 한국의 문화 예술에서도 조금 힘든 부분인 기부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회의를 주로 하는 곳입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서울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온 김에 다른 것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다른 창작 부문의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뜹니다. 그 중 관심 있는 것을 신청을 하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재단이 원래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 돈을 벌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는 부분은 사람들이 대관을 신청하고 오지 않을 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받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워크샵의 경우 예를 들어 안무가 분들이 워크샵을 하게 되면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내면의 자신을 느끼고 흐르는 대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보는 워크샵도 많이 합니다. 이런 워크샵 참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발행하는 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극 잡지, 무용 잡지, 문학 쪽에서 발행하는 ‘비유’라는 잡지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쪽 흐름을 알고 싶다면 이런 매체들도 한 번 찾아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채용과 그 과정에 대하여

이제 채용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들어오면 채용 일정도 볼 수 있고 여기 임시직과 직원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직 채용은 많이 뽑는 시기가 따로 있긴 하지만 정규직 채용의 경우 1년에 딱 한 번만 있습니다. 매년 채용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2~3월 쯤에 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월 14일에 원서를 냈습니다. 4차, 5차 면접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첫 출근은 4월 14일에 했습니다. 최종 면접부터 첫 출근 때까지 재단이 진짜 야박해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언가를 할 수는 없었어요.(웃음) 모집 분야가 보통 문화예술 기획 행정이 제일 큼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저희 직무 체계를 다시 구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문화 예술 기획 행정으로 사람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예술기획 행정에 소속되어있고 하는 업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가장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육아휴직계를 누군가가 내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예요. 재단에 여자가 많다 보니까 채용이 많아요. 또 다른 경우는 청년 사업이 새로 들어오면서 그 사업이 지속가능할 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기간제 계약직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때는 32명 정도 입사를 하셨는데 제가 입사할 때는 13명이 입사했습니다. 보통 열 명 안팎으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전형은 똑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내고 기다리고, 필기전형은 작년하고 재작년은 논술 시험이 나왔대요. 두 가지 정도 큰 걸주고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 시험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차이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현재 이슈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서술하는 게 작년하고 올해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할 때는 거기에 더 붙어서 서른 가지의 단어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세 줄 정도로 적는 거였어요. 그런 필기전형이 있었고 필기전형은 앞에 보셨던 잡지들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 아무래도 메인의 이슈다보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 면접 전형은 팀장님급 분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어려운 것을 물어보시지는 않고, 의견을 묻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종합질문능력검사는 성향 파악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면접전형은 대표님하고 본부장급 임원 분들 들어오시고, 일부 면접관은 외부에서 반쯤 들어오세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내부임원들로만 구성해서 면접을 보기보다는 외부 분들과 함께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제 면접경험을 생각해보았을 때 저희가 아무래도 대민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술가도 시민이고 예술가 아닌 시민 분들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인성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인성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문화나 예술에 대해 조예가 깊고 그런 건 아니었고, 계절마다 미술관 가고 일 년에 한번 호두까기인형 보고, 분기별로 음악회 가고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역량보다는 오픈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 동기들 보면 절반 이상은 예술전공이세요. 문학, 시각, 성악 매우 많아요. 재단 자체에도 절반 정도는 예술전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머지 절반은 전혀 관련 없는 과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전공보다는 성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면접 볼 때 조금 놀랐던 게 저랑 한 명 빼고는 면접대상자가 모두 석사였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소양보다는 예술가분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안정적

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은 편이에요. 문화예술 쪽 취직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쪽에 채용공고가 많이 올라오니깐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이트를 참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경영지원센터 들어가서 문화예술경영 소식 보시면 일자리 정보에 많이 올라와요.

제가 서울문화재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8년~2009년에 재단에서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무척 크게 했었어요. 그 때 서울문화재단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업을 택할 때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을 가고 싶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고 문화예술 쪽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찾아 보니까 그 두 개의 교차점이 서울문화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면접전형의 경우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그만 방에 외부에서 영어강사분을 데리고 와서 그 방에서 시험을 진행하는데 질문을 던지시고 영어 실력이 대충 파악이 되면 그 때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제가 받았던 질문은 아까 말했던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차이가 무엇인가?’였어요. 제가 받은 질문은 어려운 편에 속하는 질문이었고, 간단한 질문을 받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영어가 직무에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서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시에서 설립한 것이다 보니까 시장님이 바뀌면 전체적 흐름이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입사하고 나서 계속 박원순 시장님이셔서 아직 크게 느낀 것은 없지만,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시장님이 두고 있는 예술의 방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재단에 대해 말하자면, 재단에서 채널을 터서 홍보를 도와주는 사업을 해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는 도와주는 것 같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작된 것이어도 되고, 신작이여도 돼요. 그니까 이미 제작된 작품에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홍보에 써도 돼요. 저희는 기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재량에 맡기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산예술극장이라고 명동역에서 언덕 올라가다보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공연들은 극장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요. 거기는 좀 더 필드 업무예요. 예술가들을 선발이나 모집해서 오시면 그 극장에서 홍보를 도와주거나, 제작을 함께하는 등의 일을 하지만 남산예술센터에 국한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가들의 경우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술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형태라서 고용되어있거나, 소속되어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교육팀에 예술가들을 뽑아서 학교에 파견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그 때 그 예술가들은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용되고 소속되어진 형태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사업 반환하면서 현재는 소속되어있는 예술가는 없어요. 입주예술가는 뽑으면 그분들이 입주예술가라는 것은 증명해드리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스펙이 되기도 하지만 고용의 형태는 아니에요.

▶ 구체적인 업무와 필요한 역량

제가 최근에 국제 안무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이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무용계가 대학중심적, 선생님들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배움은 활발히 일어나지만 내가 한 선생님이란 밖에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많아서 국제 안무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무용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은 안무 워크숍에서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오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야 하니까 누가 좋을지 프로그램 큐레이터를 꾸려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뭐가 될

지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홍보물 제작할 때 이미지 제작하는 것, 이미지 저작권 관리하는 것, 이 업체랑 얘기해서 수익 계약하는 것, 텍스트 오타 보는 것, 그리고 선생님들 호텔, 항공 이런 것들 예약해야 하고, 비자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참여자 모집할 때 수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답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내용도 진행해야 하고 프로젝트 내용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도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어느 쪽에도 전문가가 아닌 것 같고, 어느 쪽이라도 조금씩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요청하지도 않고 다만 좇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내가 이런 소양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소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피력할 수 있는 분들. 저희 사업 자체가 설득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소신 있고 이 소신을 같이 포섭을 하고 같이 가자 이런 소양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월급은 많이 주는 편은 아니지만, 초과근무 휴일근무가 다 포함되고, 복지가 엄청나게 한전처럼 콘도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수단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따로 문화 예술 실기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문화예술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욕구들을 채워주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공연을 무료로 보는 경우는 남산에서 하는 자체 공연에 지원 모니터링이 들어가는 경우나 혹은 내가 지원사업을 담당했을 때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I <2부> 송지나 멘토님께 묻다!

사회자 : 이제 멘봉데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멘봉데이 2부는 사전에 받았던 질문지에 대한 멘토님의 답변과 1부에서 들은 강의 내용을 토대로 현장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직무 분류와 무용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인데 사실 1부에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직무를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각 직무 간의 차이라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지나 멘토 (이하 '송') : 제가 기획행정팀으로 들어왔는데 경영지원본부 혹은 기획조정팀에 가면 이 질문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환 보직**이어서 **직무가 하나로 정해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이 직무를 했다가 저 직무를 했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순환할 때 **희망보직**을 써서 내면 수렴할 수 있는 범위 하에 여건이 맞을 경우 보직을 옮겨줍니다. 제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주고 제가 누군가의 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때 옮길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보직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갈 수 없는 방식이에요.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보직으로 갈 수는 없지만 만약 경영지원본부에 가게 되면 문학기획을 하다가 인사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문화기획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사회에 들어간다든지 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경영기획단 행정이 많은데 회계, 인사, 경영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어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26살이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 분들이 왜 벌써 일하냐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단은 취직하는 연령대가 높다보니 그런데, 제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입사를 하고 아직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직무가 내 적성에 맞는 지, 다른 직무가 내 적성에 맞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해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진 않았지만 '나는 문학 쪽에 이런 걸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조금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개인이 희망하는 직무를 주려고 하지만 연구로 인사 발령이 날 수도 있고 교육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경영, 기획 쪽도 자리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르별로 연구, 교육 쪽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부서마다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송 : **그건 한 사업의 크기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아까 임시직 모집도 있었잖아요? 임시직을 저희는 '행정 스태프'라고 부릅니다. 이 행정 스태프가 올해까지만 있고 내년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의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행정 스태프는 인턴과 직원 사이입니다. 이분들은 연말까지만 근무하는 계약으로 입사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모든 보조를 맡아줍니다. 이 분들을 포함하면 직원들이 8명 정도 되고 이는 창작 공간 중에서도 꽤 큰 인력 규모에 해당됩니다. 어느 부서는 3~4명으로 구성되기 되거나 가장 많을 때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될 때도 있습니다.

사회자 : 순환보직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나요?

송 : 능력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나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합니다. 저희 동기 언니도 문학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청소년 교육을 하다가 연구 쪽에서 일을 한 후 현재 남산에서 제작을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보면 사람이 그만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정책 연구를 하시던 분은 연구 분야를 주로 맡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제작 경영 일을 주로 맡고 있어요. 청소년 교육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현재 제작을 담당하게 된 분도 국립극장 때부터 교육 분야 담당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하지만 주로 담당하게 되는, 주된 커리어는 있습니다. 즉, **주된 결은 있으나 여러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자 : 질문 두 개가 비슷해서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용과 관련된 부서의 경우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조예를 어떻게 쌓으셨는지 궁금하고, 무용 센터 이외에도 다른 분야가 많은데 왜 무용 센터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송 :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무용 센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웃음) 처음 입사 하면 희망 부서를 적는데 전 그때 홍보팀을 지원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나 면접 과정에서 '우리 언니 까칠해서 잘 다룰 줄 알고 그래서 예민한 예술가들을 잘 대처할 수 있어'라고 말을 했던 것이 작용되었는지 예술가들을 자주 만나야하는 부서로 이동이 된 거 같습니다.(웃음)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용과 관련된 지식이 거의 없었고 제가 알았던 무용이라고는 발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용센터의 경우 현대 무용이 주가 되다보니 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책도 보게 되면서 지식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무용과 관련된 조예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쓰려면 결제를 어떻게 올려야하는지와 같은 행정관련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분야에 대한 조예가 있었다면 더 나은 기획을 했을 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공연으로 인사 발령이 나면 또 공연 관련 공부를 해야겠죠?

사회자 : 멘토님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문화재단에는 정말 다양한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송 : 네. 아무래도 재단이다 보니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란 기본적으로 돈이 모이면 돈을 쓰고 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업무에서 파생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희가 수익 구조가 없고 공공기관이다 보니 감사가 철마다 오시는데 그때면 또 세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완벽한 증빙 자료들을 갖춰야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자금으로 재단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엄밀한 조사와 검사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술가들의 경우 저희만큼이나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지 못하세요. 일단 자신의 작품에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끔 드는 생각은 저희가 하는 업무가 사실은 **감사와 예술가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가 쓰는 언어가 다르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해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챙기지 못하는 행정적 부분을 저희가 대신 챙겨드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자 : 현재 멘토님께서 하시는 업무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송 : 장점은 저는 무용센터에서 지원사업 트랙이 있고 자체 사업 트랙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 트랙 쪽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랙에서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예술을 너무 판타지로, 동경의 대상으로 혹은 하찮은 것으로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저희가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기보다 콘텐츠가 제작되는 그 과정 주변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행정 업무도 함께 병행하다 보**

니 예술가들, 작가 분들과 막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도 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생기는 껄끄러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과 인간적인 친분을 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되,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힘듭니다.

사회자 : 문화 재단에서 근무할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또 이런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리고 대학생 때 이런 분야 관련 진로를 나가고 싶을 때 어떤 경력을 쌓는 것이 좋은 지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송 : 말 그대로 알아야하는 지식의 경우 무용 지식을 알고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무용에서 누가 잘나가는지, 무용의 흐름 같은 것을 미리 알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역량이라면 이건 성향 같은데 자신이 가끔 예술가들의 매니저인가 하고 조금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런 순간에도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나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마인드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경험이나 활동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 쌓은' 경력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국제 문화 공공기관이나 국제 교류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서 유네스코에 있는 청소년 센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청소년 예술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을 했었고, 몽골로 해외 봉사를 갔을 때도 업무가 나뉘어 졌을 때 축제 기획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해보니 그때 하고 싶어서 했던 일들이 재단과 연결점이 있었던 거지 재단에 입사하려는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성향, 역

량에 맞는 것을 찾아서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이 재밌는 걸 찾고 관련한 걸 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웃음) 대학을 단순히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학에서 어떤 학과를 재학 했는지가 저에게는 하나의 정체성이 되는데 만약 '나는 이런 학과를 나왔어' 라고만 얘기하고 그 학과에 관련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뭐지?'라고 조금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나 각종 단들, 예를 들어 무용단, 연극단 등 이렇게 단으로 나뉜 곳들이 많은데 그곳의 스태프로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또래 중에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는 다음에서 기획한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만난 작가 분들과 연이 돼서 같은 걸 기획해도 작가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 좀 더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판을 키울 수 있더라고요. 즉, 인적 소스를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우선 일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나 복지 부분은 어떤가요? 회사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나요? 서울 문화재단에도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는데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사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송 : 이 질문들은 재단 관련 질문들이라 모아 봤습니다. 복지는 정말 좋습니다. 연차를 일주 일에서 보름까지 쓸 수 있고 야근을 하면 그것에 대한 야간 수당이 지불되는 등 일반 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지가 꽤 잘되어 있습니다. 선배 중에서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분도 계세요.(웃음) 한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은 요구하는 역량이 많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제가 찾아 나서서 역량을 채워야 하는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할 시간을 따로 주지는 않지만 제가 지원 사업을 한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은 여가가 아닌 업무로 포함됩니다. 아!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날에 팀원들과 어떤 문화생활을 하러 가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야근은 생각보다 많긴 한데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야근이 아니라 단순히 제가 일을 느리게 해서 야근이 잦습니다. 저랑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6시에 퇴근하세요. 일 양이 적은 것은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의 스케줄을 조절하고 관리해서 그 업무량을 시간 내에 마치면 정시 퇴근하셔도 됩니다. 다만 예술가들을 만나는 부서의 경우 그들의 스케줄을 맞춰서 또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실현시키면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남기기 위해서 홍보팀과 협력해서 영상 촬영, 사진 촬영 등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듯 저희도 저희가 기획한 활동들을 자료로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홍보팀과 자주 교류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금이 필요해서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그것을 회계팀에 갖다 주면 예산이나 지원금을 받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는 공간끼리는 자신들이 막힌 부분을 다른 공간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품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호스텔이 없는 부서의 경우 호스텔 대여 관련해서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서로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내 분위기는 이 역시 부서마다 다르지만 저희 공간의 경우 여고 같은 느낌입니다. 까르르 웃으면서 '오늘 머리했네?' '후리스 구리다' 이런 식으로 서로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근데

예술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 부서는 또 전반적으로 예민한 분위기를 띄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학생 : 멘토님 업무에 외국어 능력이 많이 적용되나요?

송 : 네, 매우 많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는 제가 국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을 더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어가 필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국제 업무를 맡고 싶으시다면 외국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재단에서 외국어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국제 업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국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고 싶다면 굳이 외국어 능력을 키울 필요하진 않습니다. 국제 업무의 경우 외국에 있는 작가 분들과 연락을 할 때 메일로 연락을 드리는데 사실 사소한 문법까지 완벽할 필요는 없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달하면 됩니다.

학생 : 내년엔 4학년인 학생으로서 재단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송 : 졸업하기 전에 행정 스태프로 참여해보는 것은 좋지만 정직원으로의 전환은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정직원을 뽑지만 스태프에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방학 때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 인턴십에 참여하거나 장학재단에서 하는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인턴을 보내주십니다.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학생 : 서울문화재단에서 취업 나이가 많이 중요하나요?

송 : 제가 알기론 공공기관이나 재단과 같은 곳은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같은 신입 동기로 들어온 사람 중에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다가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신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2017 가을학기 기획위원 후기



14 한가을



15 김현지

2017년도 2학기 멘봉데이 활동은 저에게 ‘설렘과 행복’이었습니다. 멘봉데이를 준비할 때는 멘봉데이 기획위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한시라도 빨리 다른 친구, 선배,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링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어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멘봉데이를 진행할 땐 조금 떨리지만 기분 좋은 설렘으로 학생들 앞에서 멘토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멘봉데이를 무사히 끝내고 나면 저는 마치 한 달을 성공적으로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멘봉데이 기획위원으로서 열심히 학기를 보내다보니 어느덧 저에게는 졸업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늘 멘봉데이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했던 생각은 “나도 꼭 멘봉데이의 멘토가 되고 싶다.”였는데, 졸업을 한 뒤에도 멘봉데이를 잊지 않고 하나의 동기 부여 요소로 삼아 언젠가는 꼭 멘봉데이의 멘토로 찾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멘봉데이가 꼭 이어져 성신여대를 대표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학기도 함께한 우리 멘봉스들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 !!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멘봉데이!

안녕하세요. 멘봉데이 기획위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현지입니다. 이번 학기 멘봉데이에서는 새로운 시도들과 변화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학우분들에게 직무와 진로에 대한 더욱 더 심도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기획위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더욱더 다채롭고 전문성 있는 내용과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멘봉데이가 한 발자국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획한 멘봉 기획위원들, 그리고 미컴 학우들의 진로를 위해 끊임없이 신경써주시는 심상민 교수님, 그리고 항상 뒤에서 도와주시는 조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멘봉데이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워너브라더스의 최재원 멘토님, 미컴 선배님이신 양다솜, 송지나 멘토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멘토님들의 현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멘토링 세미나를 통해 현업에 대한 경험이 적은 학생들도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행사 멘봉데이는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의 교류 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알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대학생으로서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진로를 선택했는데 이 길이 맞는 지 고민이 될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감이 오지 않을 때 멘토님과 함께 멘봉데이에 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누어보고 해결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멘봉데이를 위해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겠습니다! 미کم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멘봉데이에서 만나요. 멘봉:)



15 성혜미

이번 해는 유독 정신없이 지난 간 것 같습니다. 멀고 먼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고, 당장 주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고,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 멘봉데이는 조금 과장하여 말하자면 유일한 휴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내기 시절 관심 있는 분야의 멘토님을 만나러 걸음 했던 멘봉데이가 좋아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던 날이 그제 같았는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단지 참여만 했었던 예전과는 달리 멘봉데이의 기획위원으로 함께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면서 저의 진로에 대해 더 깊은 넓은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학우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했던 기획위원 모두에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만족하여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학우들의 진로와 취업 고민에 한 발짝 다가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애정 어린 관심으로 돌봐주시는 심상민 교수님을 비롯한 저희 멘봉데이 기획위원분들 다 함께 파이팅입니다! 함께이기에 더욱 힘이 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찾아와주세요~



15 송수윤

또 한 학기가 지나가고 멘봉데이 자료집을 낼 시간이 되었네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 아쉽지만 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멘봉데이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멘봉데이를 통해 새로운 직무도 알게 되고 차차 제 미래에 대한 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직접 멘봉을 진행해보기도 하고 새로 들어온 1학년 친구도 있어서 더 뜻깊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멘봉과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 그리워 질 것만 같아 다음 1년을 더 멘봉과 함께 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2018년 멘봉데이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미커머 그리고 수정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주시는 심상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



15 이미희

안녕하세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5학번 멘봉데이 기획위원 이미희입니다. 이번 학기 멘봉데이에서 열심히 준비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많은 학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준비한 세미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즐거운 경험과 추억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멘봉과 함께한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항상 새로운 경험 안겨주시는 멘봉데이 심상민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학기도 함께 열심히 고생한 멘봉 기획위원들 모두 애정해요~ 새로 들어온 17학번 멘봉위원들의 앞으로 활약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학기에도 더 새롭고 다양한 멘봉데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5 이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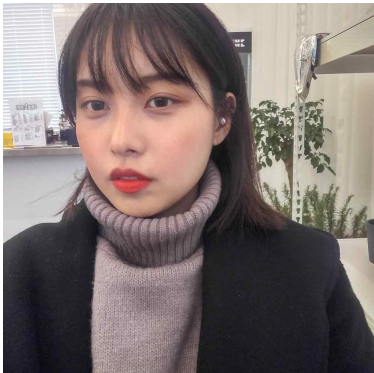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기획위원 이세연입니다! 이렇게 기획위원 후기를 쓰며 한 학기를 되돌아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한 학기를 떠나보내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를 떠나있던 저를 위해 제 뒤통까지 채우느라 고생 많았던 우리 멘봉 기획위원들 정말 고마워요. 이번 학기에도 멘봉데이는 미커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번의 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부터 미쳐 멘봉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먼 후배님들을 위해 자료집을 제작하는 일까지요. 개인적으로 이번 자료집을 제작하며 앞으로 멘봉자료집이 한 번씩 읽고 닫는 파일이 아닌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펼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담은 파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료집도 누군가에게 유용하고 재미있게 읽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멘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16 김시연

올해도 멘봉데이를 기획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많고 한편으로 역시나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긴장되고 마냥 설렘었는데 기획단이 기획한 멘봉데이 세미나를 참여해주는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온 학기였습니다. 참여자에서 기획자로서 어떻게하면 멘봉데이를 더 알리고 참여율을 올릴수있는지 늘 고민하지만 참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번이라도 와본 사람들이 또 오고싶게끔 한 것만으로도 잘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는 여러 사정으로 지난 학기보다 소극적인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자료집만큼은 잘 내어 많은 이들

이 이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다음 학기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더 나은 멘봉데이 세미나를 기획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년동안 너무 고생 많았던 기획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우리 화이팅입니다!!



16 윤동주

올해 멘봉데이 기획단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뿌듯했습니다. 멘봉데이에 참여할 때마다 성신여대생으로서의 프라이드가 더욱 커지고 저 또한 자랑스러운 멘토로 멘봉데이의 주인공이 될 날이 오길 바라는 상상을 하며 의지를 다지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멘봉데이가 더 기대되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 좋은 강연으로 기억되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멘봉데이 활동하면서 얻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멘봉데이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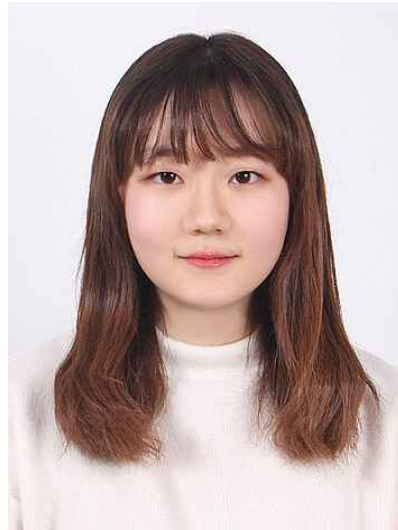
16 정미연

벌써 멘봉데이 기획위원으로 보낸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이번 한 학기는 기획위원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남는 한 학기였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멘봉이 기획/홍보/자료집 세 분야로 나누어 더욱 체계적으로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홍보팀 소속으로 카드뉴스 제작, SNS 홍보글 게시 등 미커머들과 사회대 학우분들께 멘토님의 훌륭한 강연을 소개시켜 드릴수 있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특히 저는 멘토님과 컨택을 담당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나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세미나 당일날 멘토님을 직접 만났을때, 또 멘토님이 준비하신 정성가득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멘토님과 컨택을 담당해 조금 미숙했던점, 또 다른 일정으로 멘봉 행사 당일에 참석하지 못했던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학기는 아쉬움은 덜고 더 성장한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한 학기간 같이 고생한 다른 기획위원 친구들과 교수님, 저희를 위해 바쁜시간 쪼개서 강연을 준비해주신 멘토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16 황윤정

지난 5회 간의 멘봉데이를 함께 준비하면서 멘봉데이 기획위원으로서 보낸 시간도 벌써 한 학기가 훌쩍 지났네요. 아직도 많이 서투른 저이지만, 초기에는 다양한 걱정이나 부담감 탓에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해낸 것은 기획단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또 교수님께서 멘봉데이에 계속해서 신경써주신 덕입니다. 살면서 다양한 고민이 들 때면 멘봉데이에서 여러 멘토님들이 해주신 조언이 떠오르기도 하고, 멘봉 선배님들이 그 고민을 함께 나눠주기도 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거칠수록 멘봉데이도 저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의 멘봉데이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제 가을 언니가 학교를 떠나고 이번 학기 멘봉을 이끌었던 15 언니들도 바빠질텐데,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더욱 더 풍성하고 유익한 멘봉데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18년 새 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17 박시윤

이번 학기에 새로 멘봉데이 기획 위원이 된 박시윤입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투른 탓에 많이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이 많이 가르쳐주셨고, 그 덕분에 걱정과는 달리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멘봉데이 기획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행운이었습니다! 멘봉데이를 준비하면서 학과 선배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일들과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경험들이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조언해주시고, 신경 써주신 심상민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년에도 부디 성신의 많은 학우 분들이 멘봉데이에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록

※ 아래 표는 제26회 ~ 제28회 진로세미나 멘붕데이에 참석한 멘토의 연락처입니다.

회차	멘토	직종	이메일
26	최재원	워너브라더스코리아 대표	jay.choi@warnerbros.com
27	양다솜(09)	CJ E&M 매체기획팀	Dasom.yang@cj.net
28	송지나 (08)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s0085@naver.com

※ 이하 멘토 연락 및 취업 관련 문의 사항은 심상민 교수님께 연락바랍니다.

Tel. 02) 920-7807

E-mail. ssmin@sungshin.ac.kr

지도교수 심상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획위원 '14 한가을

'15 김현지 성혜미 송수윤 이미희 이세연

'16 김시연 윤동주 정미언 황윤정

'17 박시윤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성신 미디어콘텐츠 경영연구소
Media & Content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